

목어

개와 성보문화제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은 뭐니뭐니 해도 개이지가 아닌가 싶다. 식구가 단순한 가정에서는 강아지도 가족의 일원이 된다. 특히 어린이에게는 더없는 친구가 되어 정서발달에도 한몫을 보낸다. 더러 털이 빠지거나 냄새를 풍기기도 하지만 조금만 손질을 해주면 훈련을 시키면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맛있는 먹이라도 잘 양이면 수없이 허로 하고 꼬리를 흔들대는 품이 먹이를 먹고도 전에 그 먹이가 지닌 영양가를 모두 소진시키고도 남을 지경이다. 게다가 밥상을 자지 않고 집을 지키는 충성심은 강아지를 사듯 믿음직스럽게까지 한다.

요즘 사찰에서도 개를 키우는 곳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사찰에서 개를 키우는 것을 금기시해 왔었다. 동물들의 소리나 냄새가 사찰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키우다 행여 죽게 되면 결국 살생을 범하는 것과 같은 셈이 된다 고 여겼기 때문이다.

태국의 사찰에서는 서성거리는 개들이 자주 눈에 띈다. 절에서 키우는 개들이 아니라 주인 없고 갈 곳 없는 개들이 먹이를 주는 절로 모이는 것이다. 달리 생각해보면 개들도 불쌍한 존재이다. 절에서 굶어 보살피기를 거부할 일이 아닌 듯하다.

달마 전 호남의 한 사찰에서 성보문화제를 도란도란했다. 다들스럽게 법인을 잡아 성보문화제는 회수케 되었으나, 그 절의 주지스님은 적잖이 놀랐다. 키우던 개를 잃고만 것이 못내 가슴아팠다. 법인이 범행 며칠 전 절에서 키우던 개를 약을 놓아 죽였던 것이다. 절에 있는 많은 성보문화제가 돈이 된다는 사실이 성보문화제 도란법들의 범행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 예전에 스님들이 산의 나무를 지켜왔던 것처럼 지금은 성보문화제를 지키는 일이 보통 큰 일이 아니다.

사찰에 있던 수많은 성보문화제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팔동품점에, 부자집이나 대학의 정원에, 호텔의 로비에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이길 수 없다. 성보문화제를 사찰품으로 만들고, 남의 나라에 넘겨주고, 돈으로만 계산하는 우리가 정녕 문화민족이란 말인가.

이제 개라도 사찰에서 성보문화제 지킴이가 되어 주니 더없이 고마울 따름이다.

도수(정명도량 회주·본지 논설위원)

“공부하는 종단분위기 조성”

태고종 새 총무원장 종연스님

태고종 제19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종연(宗演)스님(56)은 선출직후 종회의원들 앞에서 인사말을 통해 “1표차로 당선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4년동안 물심양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했던 총무원장 개혁과 발전 방안, 교구정책 추진, 재정확보 방안들이 꼭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가진 일문일답.

▲어느 곳이나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과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종단발전을 위해서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 화합해야 한다. 나는 늘 솔직담백 살았다고 생각해 왔다. 흠이 난 것은 부끄럽고 모든 의식주를 걸러내는 원천이다. 위로는 정경스님, 승정스님, 대종사 종사 스님들을 잘 모시고 후학들을 잘 이끌어 화합한 종단을 만들어가는데 우선 순위를 둘 생각이다.

—태고종이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개혁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태고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그동안 태고종도들은 의식주에 주력해와 자신을 갈고 닦는 공부 분위기가 덜 돼 있었다. 수행자는 늘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자세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의 정식 인가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연수와 재교육으로 끊임없이 갈마쳐 나가야 한다.

“담당부장 책임제 도입” “신뢰 쌓이면 재정 안정”

—태고종은 종단집행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종도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면 저절로 해결된다. 집행부는 착실한 종단운영으로 신뢰를 쌓아나가는게 급선무다. 앞으로 인선에 있어서도 참신하고 공심(公心)있는 인사를 발탁해 중용하며 담당부장 책임제를 도입, 각 부 부장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많이 부여할 생각이다. 또 태고종을 운영해나가는 주체인 각 지방교구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태고종 새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직후인 24일 법륜사로 정경 덕암스님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있는 종연스님(오른쪽).

특히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종무원이 모범을 보이도록 활성화해 나가겠다. —조계종과의 분류사찰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불교분류는 타율적인 방법에 의한 정화라는 미명아래 종단밖에 서 유발시킨 책임이 더욱 크다. 따라서 이제는 당사종 종단개리 해결하기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결자해지 해야 된다. 따라서 ‘정화’라는 미명아래 불교재

산관리법에 의해 불교가 부서졌으므로 종단신원(伸冤) 차원에서 ‘분류가 잘못됐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종단이 많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를 뒷받침 해주는 재정확보가 급선무인데...

▲종단에 신뢰가 모이고 덕이 쌓이면 재정안정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종도들의 정지를 모아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재정에 대한 확보책이 마련될 때까지 본인이 화주를 할 생각이다.

종연스님은 이에 덧붙여 종단 위상확립과 홍보를 위해 현재 주간(旬刊)으로 발행되고 있는 기관지(한국불교)를 곧 주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연스님은 1945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났다. 67년 법륜사에서 이남하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67년 법륜사에서 용봉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고, 74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75년 봉원사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수지하고 80년 관악산 선주암 주지에 취임, 총무원장, 종무부장, 선암승가대학 부학장, 종정사서실장, 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opia.com)

태고종과 50대 총무원장 ‘개혁’ 공감대 확산

태고종도들의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원력들이 회오리바람이 되어 50대의 젊은(?) 총무원장 선출이라는 종단 사상 초유의 변화를 일으켰다. 전임인곡스님과 역대 총무원장들의 세수는 60~70대가 대부분이었다. 교계는 이러한 세대교체가 침체와 답보상태에 있는 태고종을 쇄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종연스님은 보현도량을 주축으로 한 소장파 스님들에 의한 추대로 출마한, 비교적 새 인물이다. 태고종의 변화를 위해서는 종연스님과 같은, 참신하고 추진력이 강한 스님이 행정수반을 맡아야 한다

다들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지방을 돌다보

“결과승복 적극 협조” “지방을 돌다보

사이에서 태고종이 이래서는 안된다.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었다”는 보현도량의 한 스님의 토로는 태고종 젊은 스님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종연스님은 이미 동년배급 부장들을 발탁, 담당부장 책임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 개혁지향적인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보수층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 보수층과 운산스님을 지지했던 일부 지방총무원장들을 어떻게 원만히 이끌어 중 단행정에 적극 동참시키는가는 새 집행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그러나 운산스님이 선거 직후 “선거결과에 승복한다. 종연스님이 종무를 잘 이끌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화합된 모습을 보여줘 앞날을 밝게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

종단차원...가족법회 활성화...문화공간으로

기획연재



- ① 부처님 만나기 힘들어요
② 중산층 포교가 절인데...
③ 누가 어떻게 해야하나

지난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에 위치한 여래사(주지 정우) 대웅전. 관음재일을 맞아 600여명의 신도들이 법당을 가득 메웠다. 이날 법회에서는 다른 사찰과 달리 거사들과 자녀들이 많이 참석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손을 잡고 가족법회에 나온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월 2일, 착공 3년만에 문을 연 여래사는 이미 4,000여 세대의 신도를 확보, 일산의 신형요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92년 종교부지 550평을 불하받아, 96년 허허벌판에 가건물을 짓고 법당을 마련한 후 4년만에 성공한 사찰로 자리매김한 성공비결은 신도시 조성 시점에 발빠르게 대처한 것이 주요했다. 아울러 지상 5층, 지하 4층, 건평

3000평의 초대형 사찰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통도사와 구룡사의 재정적, 인적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청소년회관과 소극장, 시청각실, 인터넷방 송국(예정) 등을 갖추고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개방, 시민들의 자연스런 관심을 유도한 것이 특별히 제 몫을 했다.

이처럼 통도사 일산포교당인 여래사의 성공사례는 신도시 포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신도시에는 30대 부부가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중산층 가정의 많다. 일산 여래사처럼 일원법회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거나, 탄원원각사의 경우처럼 거사법회와 신도시 시점에 발빠르게 대처한 것이 주요했다. 아울러 지상 5층, 지하 4층, 건평

야 한다. 신도시 포교당은 어린이법회 및 가족법회를 개최하면서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파트단지별로 구역법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신도시 불자들의 또다른 특징은 초심자가 많고, 책을 통해 불교공부를 한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불교에 대한 이들의 심적·지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주 법회 참여 인원이 격감할 정도여서 지식인층을 고려해 법문의 내용과 질을 준비해야 한다. 고승, 불교대학 교수와 유명인사를 초청해 합리적이고 수준 높은 법문을 할 경우 불사 참여율도 높아진다.

신도시 불자들은 교리적으로는 밝은 편이지만, 사찰 예절 등

신행에는 어두운 편이어서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때문에 초심자로부터 불교공부를 많이 한 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의 신행에 체계화하기 위한 (주·야간)불교대학이 필수적이다.

현재 7기까지 진행중인 여래사 불교대학의 경우처럼 불교대학(사찰예절 및 불교교리)-실천(자원봉사)과정-경전반 코스 등으로 나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도시 사찰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찰이 지역민을 위한 문화 센터가 되어야 한다. 꽃꽂이 사물놀이 서예 판소리 외국어 무용 연극 선무도강화 등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갖추고 불교 음악공연, 전시회, 유적답사 등 문화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해 사찰이 친교의 공간이 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결혼 및 장례식 공간도 제공해 경조사사를 통한 자연스런 포교 효과도 극대화해야 한다.

지역민의 교육·가정·청소년문제 등을 상담하고 문제 해결에

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구룡사의 진리의전화처럼 전화상담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상담도 가능토록 해당 접근이 쉽도록 한다. 청소년법회 및 부설 유치원을 활성화해 맞팔이 부부가 많은 신도시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노력을 통해 지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신도시 포교당의 이런 다양한 노력은 스님들의 웅망정진과 종단 내지 유력 사찰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송광사 일산포교당인 정혜사를 비롯 분당 장안사 및 연화사, 평촌 보림사, 중동 서래사 등 통도사의 10여개 신도시 포교당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구본사급 유력 사찰의 인적 물적 지원은 신도시 사찰의 성공요인임에 틀림없다.

이와 관련 조계종 포교원은 내년 초에 조계사 봉선사 용주사 등 교구본사가 참여하는 ‘수도권포교위원회’를 구성, 상반기내에 신도시 등 수도권 포교현황을 파악해 포교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명우·김재경·김주일 기자 (mwhan@buddhopia.com)

은사 응답스님의 대비를 모시고

제방의 원로 대덕스님을 위시로 한 사부대중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경건년 11월 14일(음 10월 19일) 원로의원이시며 은사이신 응답스님께서 세남 87세 법남 70세를 일기로 사바의 인연을 마감하시고 입적하셨습니다. 종단 원로의 위상에 따른 절차가 있음을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스님의 간곡한 유훈을 거역할 수 없어 경건년 11월 16일(음 10월 21일) 산중 안에서 조촐하게 대비를 모셨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심정과 고충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스님께서 남기신 유훈과 자취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 할 터이니 딴 생각하지 말라. 시주의 은혜를 입거나 신도와 상좌의 신세를 지고 싶지 않다. 내가 죽었을 때 사방에 알려 번거롭게 하지 말고 산중에서 조용하고 조촐하게 화장하여 흩어 버려라. 49제 등 어떤 제사도 지내지 말라. 요즘 절 집의 대비가 너무 번거롭고 호화스러워 불조의 뜻을 저버리고 시주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니 너희들이 내 상좌라면 내가 이야기한대로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 거듭 당부하오니 소홀히 하지 말라.” 스님의 한평생 살림살이는 본분 남자로서 매우 단순하고도 소박하셨습니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청빈한 삶을 즐기셨고 입적하시는 날까지 신도와 상좌의 시봉을 거절한 채 청소, 빨래 등 당신의 일상적 삶을 몸소 꾸려 가셨습니다.

스님께서 그 동안 보시를 받으셨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시고 그대로 적금하셨다가 입적하시기 며칠 전 본사주지 법장 스님과 상좌 수경에게 부촉하시기를 이 돈은 소중한 시주의 돈이니 중생을 위하여 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스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있는 저희들은 스님의 뜻에 따라 모아 놓으신 칠천만원 생명살림의 불사인 ‘생명나눔실천 본부’에 이천만원, ‘인드라마 생명공동체’ 이천만원, ‘사랑실은 교동봉사대(어린이 심장병 치료단체)’ 천만원, ‘지리산 살리기 범불교연대’이천만원등을 기증하는 것이 조용하게 대비를 모시는 일이라 믿고 실천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응색한 처신으로 인하여 종단 원로 대덕스님을 위시로 한 사부대중께 큰 누를 끼치게 된 점 깊이 참회 드리며 스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심정과 고충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주신 종단 원로 대덕스님과 모든 사부 대중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고 상좌 수경의 문도 일동 합장

응답 대선사 대비를 마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諸方의 元老大德스님을 위시한 四部大衆께 송구한 마음으로 우선 紙面을 통하여 人事를 올립니다. 지난 11월 14일(음 10월 19일) 宗團의 元老義員이시며 山中의 老德이신 應潭大禪師께서 入寂에 드셨습니다. 宗團의 元老會議 張의 절차가 있음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禪師께서 남기신 간곡한 유훈을 거역할 수 없어 부득이 지난 11월 16일(음 10월 21일) 알려 드리지도 못한채 山中안에서 조촐하게 대비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禪師께서는 한평생 본분남자로서 매우 단순하고도 소박하셨으며 입적하시는 날까지 신도와 상좌의 시봉을 거절한채 손수 청소 빨래등 일상적 삶을 몸소 실천하면서 사셨습니다. 한날 갑자기 본사 주지인 저와 상좌인 수경수좌를 불러 유훈을 아래와 같이 남기셨습니다.

“내일은 내가 할터이니 절대 딴 생각 말라. 시주의 은혜를 입거나 신도와 상좌의 신세를 지고 싶지 않다. 내가 죽거든 절대 부고하지 말고 산중에서 조용하게 화장하여 흩어버려라. 49제 등 어떤 제사도 지내지 말라. 요즘 절집의 대비는 너무 번거롭고 호화스러워 불조의 뜻을 저버리고 시주의 은혜를 망각한 것들이니 본사주지 법장스님이 내가 ‘말한대로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 거듭 당부하오니 소홀히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간 보시받아 모아 두셨던 7000만원을 내 놓으시며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이나 중생을 위해 쓰도록 하라고 당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드라마생명공동체에 2천만원, 생명나눔실천회에 2천만원, 지리산살리기 범불교연대에 2천만원, 사랑실은교동봉사대(심장병어린이들이듣는단체)에 천만원 등으로 뜻을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종단의 元老大德스님을 위시한 사부대중께 누를 끼치게 된점 깊이 참회드리며, 선사의 뜻을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본사 주지로서의 심정과 고충을 넓은 혜량으로 헤아려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와 용서를 빌면서 元老大德스님과 사부대중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덕승총림 수덕사 주지 金法長 합장